



[경제종합] 코스피 상승 예고 주담대 금리 7%대 가시화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11.42 (-38.12)	코스닥	782.93 (-13.86)
금리 (연준 기준)	3.585 (+0.049)	환율 (원/달러)	1390.90 (+17.30) (1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8.12포인트(1.56%) 하락한 2,411.42로 장을 마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30원 오른 1,390.90으로 장을 마쳤다. /뉴스

# 美, 예상 밖 물가 폭등

(공황매도)

美 CPI 8.3% ↑... 전망치 웃돌아 뉴욕증시 2년 3개월來 최대 하락 연준 '울트라스텝' 가능성 높아져 9월 FOMC 앞두고 블랙아웃 돌입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과 달리 상승했다.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의지에 세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 '증시 비관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8월 CPI는 전월 대비 8.3% 상승해 시장 전망치(8.1%)를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군을 제외한 근원 CPI다. 8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3% 올라 전월(5.9%)와 시장 전망치(6.0%)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CPI 발표 이후 연준의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0bp 인상(1bp=0.01%p))' 불안감이 커지며, 뉴욕 증시 패닉셀링을 유발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76.37포인트(3.94%) 떨어진 3만 1104.9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77.72포인트(4.32%) 폭락한 3932.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32.84포인트(5.16%) 폭락한 1만1633.57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6월 11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세를 보였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코스닥 지수도 1%대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12(1.56%) 내린 2411.42에, 코스닥 지수는 13.86(1.74%) 내린 782.93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4월 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약 13년 5개월만에 139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 증가보다 17.30원(1.26%) 오른 1390.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높아지며, 연준이 긴축을 통해 강제적인 수요 둔화를 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7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으나, CPI 발표 이후 100bp 금리를 인상하는 '울트라스텝'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CME 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이 9월 100bp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기준 0%에서 이날 오후 기준 38.0%까지 올랐다. 노무라증권도 9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치를 75bp에서 100bp로 공식 변경했다. 만일 연준이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이는 40년 만에 처음이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8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연준이 오는 9월 FOMC에서 1%포인트의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9월 FOMC 금리 결정 및 이후의 인상 강도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FOMC를 앞두고 관련 인사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시기에 돌입한 상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이번 CPI 결과에 대한 연준의 평가를 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노이즈 섞인 100bp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전망들이 FOMC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 경기 모멘텀 약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흐름과 주식시장 하락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빨라지는 친환경차 시대

# 반도체 숨통... 하반기 新전기차 10종 출격

GM·지프 등 전기차 라인업 확대 2025년 이후 본격 대중화 될 듯 전용 공장 완공엔 가격도 안정화

반도체 공급난이 서서히 풀리면서 전기차 시장도 보급 확대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모처럼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 기지가 자리를 잡으면 보급형 시장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차세대 친환경차 전략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는 하반기 전기차만 10여종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공개됐던 기아 EV6 GT와 현대차 아이오닉6를 비롯해 폭스바겐 ID.4, 메르세데스-벤츠 EQE, BMW i7 등이 대기 중이다. 아우디가 Q4e트론을 최근 출시했고, 쉐보레 볼트 EV와 EUV, 폴스타2 등 이미 출시됐던 모델도 모처럼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까지 누적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9744대에 달한다. 2달만에 상반기(6294대) 판매량의 절반 가량이 더해졌다. 하반기 신차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공급이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되면서 대기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신차 출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내년에도 전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브랜드가 적극적이다. GM이 내년에 북미에 출시할 이쿼닉스 EV를 공개했고, 지프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첫 순수 전기차인 '어벤저'를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전동화 작업을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폭스바겐이 ID 에어로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은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전기차 대중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 수준인 6000만원(5만달러) 안팎,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가격을 일반 내연기관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는 2025년부터 미국에 전기차 양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토요타도 2025년 양산을 목표로 7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폭스바겐과 GM이 이미 전기차 생산 기지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전기차 양산 계획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배터리 가격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체들도 양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 경쟁에 뛰어들 조짐이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반도체는 ‘산업의 쌀’... 생사 걸려있다”

尹 대통령, 반도체 특위와 오찬 민주 출신 양향자 위원장 참석 “K칩스법 국회통과 지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고, 반도체산업 육성이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닌 실시간 해야 되는 현안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권여당에서 반도체 특위를 구성해서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양향자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당에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께서 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로 투자할 분야와 적극적인 투자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한 국가의 미래 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기술적 역량, 국민 공감,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이미 세 가지 모두 갖췄다”며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온 국민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윤 대통령도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위가 활동 결과

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반도체산업은 일본일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징이 있다. 기술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도 노심초사하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시장이 중요하다”며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진석 “당 정상화 책임”... 이재명, 이레적 수사 비판 /사진 뉴스스 ▲ 여야, 첫 정기국회 본격 돌입... 노란 봉투법에 절망하는 기업

▲ 與, 19일 원내 사령탑 선출... 윤재옥·김학용 후보군 10명 ▲ 김건희 특검 반대한 조정훈에... 박병계 “국회 어떻게 들어왔나”



▲ 이재명, 김건희 특검에 “좌고우면 말고 국민 원하는 정치부응” /사진 뉴스스 ▲ 이재명 ‘성남FC 의혹’ 송치에... 민주 “희대의 권력남용” 격양